들 塔婆硏究가 밝혀지기를 바라는 바다。

註

① 寺址에 蓮花紋石片과 같이 一邊長 五五㎝의 四角形造出部가 있는 加工石이 있으나 그 用途는 未詳하다。

② 金載元·尹武炳 感恩寺址發掘調査報告「西三層石塔과 發見된 舍利關係遺物——B寶蓋——」條 參照

③ 拙著 靑陽郡誌「名勝古蹟——邑內里三層石塔——」條 參照

④ 高裕燮遺著 韓國塔婆의 硏究 各論草稿「靑陽邑內三層石塔」條

⑤ 金載元·尹武炳 前揭書「靑銅製四角龕」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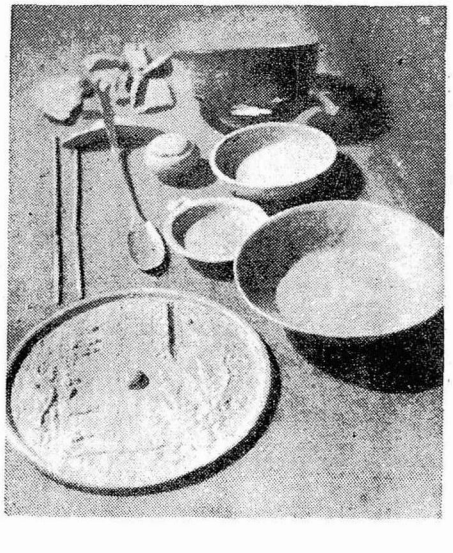
⑥ 梅原末治「吳越王錢弘俶八萬四千塔」(考古美術 第八卷 第四號)條 參照

密陽 茶竹里 出土遺物

李 雲 成

지난 二月一〇日 密陽郡山外面茶竹里에 사는 孫載憲(三七歲)氏는 그가 耕作하는 뽕밭에서 구덩이를 파다가 高麗銅鏡 및 靑銅周鉢、高麗磁器등 一〇點의 埋藏文化財를 發見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出土狀況과 유물에 대하여 紹介하고자 한다。

密陽邑에서 山內行이나 表忠寺行 버스를 타고 山外面事務所 앞에서 下車하여 北쪽 洞路을 따라 한참 올라가면 山外面茶竹里 竹西마을에 이른다。이 마을은 茶院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高麗時代에는 密陽唐氏와 毛氏가 世居하였다 하며 李朝中期以來 이웃 마을인 竹東의 密城孫氏와 함께 서로 閥勢를 자랑하면서 數百年을 살아오고 있는 安東孫氏의 마을이다。出土地點은 마을 東편 山기슭에 있는 대장골(大將谷)에 계단식으로 개간이 된 前記 孫氏 所有의 桑田 한복판인데 出土地點에서 四m 떨어진 밭 한구석에는 民墓의 封土가 四方으로 감아 덕힌채 마치 네모난 箱子처럼 앙상하게 남아 있는 것에 注意가 간다。孫氏는 이 墓에 대하여 재미있는 逸話를 들려준다。日帝 末葉에 처음 이곳을 개간한 밭임자(現在所在不明)의 꿈에 현출한 白髮의 將軍이 자주 나타나서 〈내 집을 네가헐어버렸으니 새 집을 지어 달라〉고 간청하므로 後患이 있을까 염려되어 개간한 밭 한구석에 假墓의 封土를 모운 것이 現在까지 遺殘하는 것이라 하며 側近에서 高麗時代의 副葬品으로 추측되는 遺物이 새로이 出土된 사실과 함께 대장골(大將谷)이라는 地名이 매우 흥미스럽다。그러나 將軍과 出土유물을 關聯지을만한 근거는 희박한 것 같고 出土狀況을 조사해 본바 유물이 나온 자리에는 土葬을 한듯한 長方形 玄室의 遺構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가로 八〇㎝ 세로 一九〇㎝ 깊이 四〇㎝정도의 構造로서 東西로 長軸을 하였고 바닥과 네 壁面의 흙은 단단한 黃土였음을 짐작케 하였다。遺物의 配置는 孫氏의 證言을 土臺로 하면 東편에 靑銅周鉢과 匙箸、그리고 靑磁象嵌의 大接과 油壺등이 엎어져 있었으며 가운데에 銅鏡과 靑磁接匙、유리貫子등이 나왔고 西편에 몇조각의 鐵片과 土器片이 發見되었다 하는데 흙속에 파묻힌 유물을 무작정 發掘하기에 바빴던 당시의 狀況으로 보아 孫氏의 證言은 종잡을 수가 없을 것 같다。出土된 유물을 간추려 紹介하면 다음과 같다。



(1) 靑銅圓鏡

宋·金·元式 高麗銅鏡으로 주석이 많이 섞인 비교적 良質의 靑銅製品이다。全體的으로 灰蒼色을 띄고 있으며 表面에는 아직도 反射部分이 殘存하고 있으나 군데군데 酸化의 斑點이 있어 흠이 되고 있다。背面에

는 圓形의 두툼한 변죽이 둘려지고 그 바탕 全面에 걸쳐 그림 무늬를 半肉彫로 조각하여 立體感이 완연하다。 무늬는 우리 나라 南部地方에서 出土例가 있는 樹閣人物圖로서 彼岸、구름 속의 殿閣、乘雲한 세 사람의 神仙、거센 물결 위에서 날뛰는 毒龍、散髮한 夜叉鬼、此岸의 다리 위에 선 人物、변죽을 따라 둥그렇게 안으로 허리가 휘어진 잎이 무성한 나무 등、한 폭의 冥府圖와 같은 繪畵로서 信仰的인 풍취가 짙다。 한가운데에는 左右로 貫孔이 난 꼭지가 붙어 있으며 거울面의 直徑은 二十二㎝ 변죽의 넓이 一㎝ 꼭지直徑 一·三㎝이다。

(2) 靑磁象嵌菊花文大接

그릇의 內面에는 단순한 白土로 세곳에 菊花文을 象嵌했으며 口邊 가까이 두 줄의 白象嵌 띠를 둘렀다。 口邊이 안으로 약간 오무라 든 外面에는 아무런 무늬가 없고 위로 크게 바라진 그릇 모양에 比하여 底面이 좁고 굽다리가 낮아서 安定感이 없어 보인다。 胎土의 質이 비교적 좋고 灰靑色의 맑은 釉藥이 그릇 全面에 씌어졌으나 고르지 못한 氷裂文과 모래구멍 그리고 內面 바닥에 붙은 굳더더기 등 만든 솜씨가 精巧하지 못하다。 發掘時의 不注意로 破損된 것을 接着劑로 붙여서 復元한 그릇의 口徑은 一八·三㎝ 높이 七·八㎝ 底徑 五·六㎝이다。 靑磁象嵌 技法의 쇠퇴기인 高麗末의 作品이라 보아 무방하다。

(3) 靑磁劃地唐草文圓形接匙

납작한 大接型의 圓形接匙로 平底한 內面의 바닥과 높고 자연스럽고 벌어진 변죽의 部分이 區分되어 있으며 바닥과 변죽 全面에 걸쳐서 唐草文으로 무늬와 무늬 사이를 얇게 긁어내어 맑은 釉藥을 발랐으며 口邊 가까이 가는 陰刻線을 한줄 둘렀다。 裏面에는 素文으로 灰靑色의 맑은 釉藥을 발라 全面에 고르게 氷裂文이 나 있으며 납작하게 밑이 쳐져서 굽다리가 안으로 감춰진 유례가 드문 모양의 器皿이다。

前記 大接과 같은 時代의 作品으로 보여지며 口徑은 一七·七㎝、內面底徑 一一·四㎝ 높이 四·五㎝ 裏面底徑 六·二㎝이다。

(4) 靑磁象嵌菊花文油瓶

瓶口가 파손되어 완전한 형태파악이 곤란하나 胴體가 부르고 굽다리가 省略된 平底의 扁壺形의 조그만 瓶이다。 胴體에는 前後面에 各 一輪의 菊花文을 左右面에 各 一羽의 鶴을 黑白으로 象嵌하였고 병의 어깨에는 花文帶를 白象嵌하여 둘렀다。 精選된 胎土에 透明한 靑灰色 釉藥을 두텁게 씌운 참한 高麗磁器이다。 口徑 一·八㎝ 높이 七·五㎝ 胴體의 幅 六·三㎝ 底徑 三·二㎝

(5) 有蓋靑磁象嵌草花文蜜壺

조그만 항아리형의 납작한 蜜壺로서 圓形의 뚜껑이 달려 있다。 胴體에는 세군데에 꼭 같은 草花文이 黑白으로 象嵌되었으며 壺口에는 뚜껑을 받기 위한 입전을 안으로 옴팍하게 만들었고 一部가 파손된 뚜껑 윗面에는 中心部에 一輪의 菊花文과 그 둘레에 花瓣文帶를 白象嵌으로 둘렀다。 胎土와 釉藥、製作技法 등으로 보아 앞의 油瓶과 같은 時代의 作으로 본다。 口徑 一一·四㎝ 蓋徑 四·一㎝ 높이 三·四㎝ 胴體의 폭 五·六㎝ 底徑 三·六㎝

(6) 白磁素文圓形盞

質이 좋은 白胎로 얇게 빚어 淡靑色의 맑은 釉藥을 곱게 바른 보시기 모양의 盞이다。 굽다리가 낮은 옴팍한 外底의 모양으로 보아 本來 盞臺가 있는 듯 하나 함께 出土되지 않았다。 口邊에는 釉藥을 바르지 않고 裝飾的인 効果를 노린듯 白胎의 素地대로 자연적 테둘림이 되어 있다。 靑磁象嵌技法의 全盛에 눌린 이른바 高麗末期의 素朴한 白磁小品이라 볼 수 있다。 口徑 一〇·四㎝ 높이 四·五㎝ 出土時 여러 조각으로 破損된 것을 接着劑로서 復元하였다。

(7) 銅製周鉢

주석이 섞인 靑銅製의 周鉢인바 뚜껑이 없다。 酸化가 심한 部分은 삭아서 떨어져 나가고 口緣部와 굽다리 部分이 破損兩分되어 있으나 그릇의 형태를 파악할 수 있다。 口緣部의 입전을 外反으로 살짝 마무렸고 접시모양의 別途로 된 굽다리를 그릇의 안바닥 네군데에 銅釘을 박아 附着시켰다。 口徑 一六·五㎝ 口緣넓이 〇·七㎝ 높이 九·七㎝ 굽다리 높이 一·一㎝ 底徑 八·二㎝

이 밖에 靑磁에 屬하는 素文圓形接匙 二點、靑銅製品의 匙箸 한벌과

유리로 된 透明 貫子 一個、鐵製破片 四點、土缸의 口緣部分의 破片 四點도 收拾하였는바 이러한 一括遺物로 보아 高麗末期의 土葬墳墓 및 그 副葬品의 좋은 一例를 남겼다고 생각한다。

百濟 王興寺址 搬出遺物

洪 思 俊

一

扶餘郡 窺岩面 新九里(왕언이部落)에 位置한 王興寺址는 一九三三年頃 盧道陽敎授(明智大)에 依하여 女瓦에 「王興」(高麗)銘文이 밝혀짐에서 비로소 學界에 알려진 것이다。

三國史記에는 「法王二年春正月創王興寺度僧三十人」 云云하여 그 位置가 未詳하며 (武王三十五年春二月王興寺云云은 彌勒寺의 誤記) 三國遺事法王禁殺條에는 王興寺가 王都附近에 있는 것을 알리는 同時에 寺域 周圍環境을 알리고 있다。 즉

「明年庚申度僧三十人創王興寺於時都泗沘城今扶餘……附山臨水花木秀麗四時之美具焉王每命舟泛河入寺賞其形勝壯麗」云云

그리고 王이 이 寺址에 行香한 것도 알리고 있으려니와 三國遺事 南扶餘百濟條에도 焃石을 紹介한 文句에 아래와 같이 있다。

「又泗沘崖又有一石坐十餘人百濟王欲幸王興寺禮佛先於此石望拜佛其石自焃因名焃石」

(焃石은 扶餘舊校里구들래 가마바위로 봄)다시 三國遺事太宗春秋公條에는 王興寺의 位置를 間接的으로 알려준 文句라 하겠다。

「五年庚申 (義慈王二十年)六月王興寺僧皆見如舡揖隨大水入寺門有大犬如野鹿自西至泗沘岸向王宮吠之俄石知所之」云云

二

그러면 記錄의 王興寺와 왕언리部落의 王興寺址 位置를 알게되리라 보는데 이 王興寺址에서 果然 그 當時의 遺物이 現在 殘存하고 있을까 살펴 볼적에 現場에는 東西一線의 石築이 남아 있고 方形礎石이 七個가 白南珍氏宅附近에 散在하고 있을 뿐 餘他는 남아 있지 않다。 그러나 筆者가 三十餘年 留意하여 본 結果를 아래에 紹介하여 보면

一、扶餘博物館 王興寺出土의 石佛座像(破壞가 甚하며 現高六八㎝ 膝幅 七〇㎝)一軀는 一九四七年에 移置(時代百濟)한 것이며、

二、一九三七年春에 窺岩面外里에서 發見되어 이미 發表된 八種文樣塼中 蓮華文塼과 同一한 蓮華文塼片(縱一三·五㎝ 幅一三·二㎝ 厚三·八㎝)이 一九三八年春에 王興寺址에서 發見 扶博에 收藏하고 있다。

三、一九三二年에 筆者가 扶餘에 와서 처음으로 눈에 뜨인 것은 舊校里구들래部落(日政時 上水道탱크가 現存)에 高 約二·五m 南北으로 長方形의 垈地 三百坪可量의 周圍를 石築한 것인데 이 石材들은 百濟時代의 長臺石 等으로 보았다。 이 石材들이 水道탱크가 設置될때 一九三五年頃 江景方面에 어느 富豪가 가져갔다는 말을 듣고 몹시 愛惜하게 알았으나 찾을 길이 없던 바 今次 그 石材들이 論山郡 城東面 牛昆里(바깥소곤部落) 朴祥來(死亡 現家主 朴明鎬 三八歲)家材로 使用함을 알고 찾아본 結果 別紙와 같은 門石三種과 方形礎石 一個 石燈竿石 等으로 볼 수 있는 八角柱二個(兩分?) 礎石에도 八角形(A)形과 (B)形 二種이 있으며 上面과 四方側面만을 治石한 板石에 縱七四㎝ 幅三八㎝ 二十四個、縱九五㎝ 幅四三㎝ 五個、長六七㎝ 幅四〇㎝ 板石 一個를 發見하였는데 모두가 時代는 百濟인 것을 알게 되었다。

本是 이 石材로써 舊校里에 築臺를 쌓게된 始初는 高宗時代 李學官이 사랑채(舍廊)를 西向하여 九間을 建築한 것이며 다음에 李道宰(忠淸道觀察使)別墅로 다시 天道敎布敎所로 變遷하였다가 乃終에는 前記한 바와 같이 牛昆里 朴祥來에게 石材와 木材가 넘어 갔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牛昆里 姜老人과 舊校里 張德秀 七二歲 談)

三

牛昆里에 移轉된 石材가 本是 舊校里 李學官의 家材로 使用하게된 것은 新造의 石材가 결코 아님을 알게된다면 그 石材들은 對岸王興寺址에